

삼성 KPM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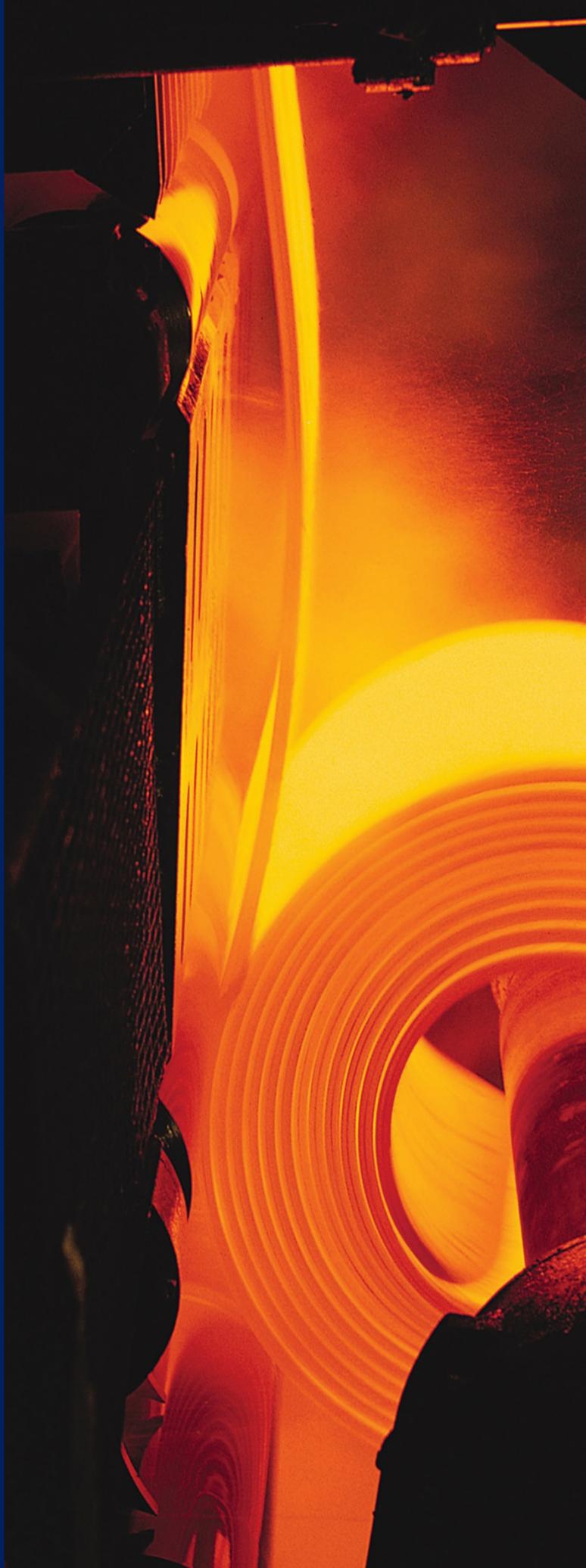
Industry Financial Analysis

October 2017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분석기간: 2012~2016년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임두빈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7469
doobeenyim@kr.kpmg.com

장진영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7095
jinyoungchang@kr.kpmg.com

엄이슬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3918
yeom@kr.kpmg.com



Contents

	Page
Executive Summary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4
산업 재무분석의 필요성	4
연구의 범위 및 분석자료	4
연구방법론	5
회계적 논리구조에 따른 재무비율 도출	5
분석 단계별 활용지표	6
평균의 이상치(Outlier) 제거	9
철강 산업 전체 재무분석	10
자산, 부채, 자본으로 본 철강 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	10
철강 산업의 매출과 원가관리	11
철강 산업의 영업이익과 판매비 및 관리비	13
철강 산업의 법인세차감전이익과 영업외손익	15
철강 산업의 최종성과와 미래 신규투자여력	16
철강 산업 세부 업종별 재무분석	17
자산, 부채, 자본으로 본 철강 산업 세부 업종별 미래 성장잠재력	17
철강 산업 세부 업종별 매출과 원가관리	19
철강 산업 세부 업종별 영업이익과 판매비 및 관리비	22
철강 산업 세부 업종별 법인세차감전이익과 영업외손익	25
철강 산업 세부 업종별 최종성과와 미래 신규투자여력	27
결론 및 시사점	29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ecutive Summary

산업의 재무분석은 해당 산업에 속한 개별기업은 물론 정책입안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철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최근 5년간 평균 재무비율을 통해 해당 산업의 성장성과 재무적 안정성, 손익계산서 흐름에 따른 단계별 수익성 및 비용 효율성, 신규투자여력의 변동 등을 분석한다. 특히 철강 산업 전체 기업들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철강 산업의 세분류에 속한 업종별 비교 분석도 수행하여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이 본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정보의 실질적 유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Executive Summary

■ 산업 재무분석의 활용

- 개별기업: 동종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을 통해 산업 내 수익·비용 항목들의 재무적 트렌드를 파악하고, 자사의 현재 재무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
- 정책입안자: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 정보를 통해 산업의 성장과 쇠퇴 주기를 가늠하여 신성장 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반영
- 투자자: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 분석대상 및 연구방법

- 분석대상: 2017년 5월까지 공시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개별 기업 재무정보에서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하위 중분류인 '1차 금속 제조업' 중 비철금속 분야를 제외한 537개 기업
-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 비율과 수익·비용 발생의 손익계산서 도출 과정에 상응하는 24개의 산업 평균 재무비율 도출
- 평균의 함정으로 인한 왜곡된 분석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상하위 10% 이상치(outlier)를 제거한 Trimmean을 사용

■ 철강 산업 분석결과

-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부진으로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국내 철강 산업의 성장이 2016년 들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철강 업계의 평균적인 총자산증가율은 2015년 1.14%까지 하락했으나 2016년 3.63%로 상승. 또한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2016년 매출액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5년 대비 매출액 감소폭이 축소됨
- 성장성 지표들의 회복과 더불어 수익성 지표들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원가 대비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매출총이익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영업이익률도 2016년 들어 상승 추세로 전환
- 다만 유동비율,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은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단기적인 유동성은 더욱 약화된 상태. 따라서 철강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전방산업의 수요 변화, 환경규제 강화, 건설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철강 산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
- 철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최근 5년 간 평균적으로 납입자본 대비 유보액을 꾸준히 증가시켜 신규 투자여력을 확보해 왔음.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강 업계는 연구개발, M&A, JV등에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산업 재무분석의 필요성

산업의 재무분석은 개별기업과, 정책입안자 및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다. 먼저 개별기업은 자사가 속한 동종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을 통해 산업 내 수익, 비용 항목들의 재무적 트렌드를 파악하고, 자사의 현재 재무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해 볼 수 있다.

“ 개별기업, 정책입안자, 투자자의 합리적인사결정을 위한 재무분석 정보 제공



또한 자사가 속한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을 통해 해당 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과 신규투자여력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미래 경영 성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사의 재무적 성과가 산업의 전반적인 산업 사이클에 기인한 것인지, 자사의 개별적 경영 성과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고 사업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정책입안자의 경우 산업의 평균 재무비율 정보를 통해 산업의 성장과 쇠퇴 주기를 가늠하여 신성장 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한편 투자자들은 산업 평균 재무비율보다 실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등, 투자사결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의 범위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철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2012년~2016년 평균 재무비율을 분석한다. 특히 철강 산업 전체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철강 산업의 세분류에 속한 업종별 평균 재무비율을 분석하여 정보의 실질적 유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 2012년 ~ 2016년 철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재무비율 변동을 분석



분석자료로 NICE평가정보의 KISVALUE에서 제공하는 개별기업 재무제표를 사용하였다. 2017년 5월까지 공시된 외부감사대상기업 27,322개의 개별 기업 재무정보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하위 중분류인 '1차 금속 제조업' 중 비철금속 분야를 제외한 537개 기업을 추출했다. 해당 관측치의 평균값을 통해 먼저 철강 산업에 속하는 전체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의 평균적인 재무비율 분석을 수행했다.

다음으로 철강 산업에서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이 속하는 세분류 업종을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철강 산업의 세분류는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철강관 제조업, 철강 주조업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의 총 5개로 구분된다.

“ 비철금속을 제외한 1차 금속 제조업 속한 외부감사대상 527개 기업의 재무정보 추출 ”

1차 금속 제조업(비철금속 제외) 세분류	
구분	외감대상기업수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19개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105개
철강관 제조업	156개
철강 주조업	79개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168개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연구 방법론

회계적 논리 구조에 따른 재무비율 도출

“ 회계적 논리에 따라 손익계산서의 단계별 흐름에 상응하는 재무비율 선별 ”

재무제표 또는 재무정보를 구성하는 항목들 중에 특정한 두 항목 간의 비율로 표현되는 재무 비율은 수없이 많을 수 있으나, 경제적인 의미가 있고 실무적으로 유용한 재무비율은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익계산서상 당해 년도 최종 수익 도출과정의 논리 흐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산업 평균 재무비율을 도출한다. 손익계산서의 논리흐름으로 재무비율을 분석하면 수익과 비용발생의 각 단계별로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재무적 트렌드 및 경영성과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의 재무 안정성과 미래 성장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과 관련된 재무비율을 분석한다. 기업의 목표는 이익극대화를 통한 총자산의 증가이며, 이는 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총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증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기업의 영속성과 재무적 안정성을 전제했을 때, 총자산의 증가는 부채의 증가보다 자본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분석은 전술한 손익계산서 흐름에 따른 재무비율 분석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손익계산서상 최종 잉여금은 자본 증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분석단계별 활용 지표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과 관련된 지표로는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활용한다. 총자산증가율과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의 변동을 통해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유동비율을 통해 단기적인 성장잠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비율을 통해 산업의
성장잠재력 분석 ”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 비율	
활용 재무비율	산출식
총자산증가율	$\frac{(\text{당기총자산} - \text{전기총자산})}{\text{전기총자산}} \times 100$
자기자본비율	$(\text{자기자본} / \text{총자산}) \times 100$
부채비율	$(\text{부채총액} / \text{자기자본}) \times 100$
유동비율	$(\text{유동자산} / \text{유동부채}) \times 100$

한편 손익계산서는 크게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이익, 당기순이익 도출의 4단계 과정을 거친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이익이며,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이익이다. 법인세차감전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수익을 합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한 이익이며, 당기순이익은 법인세차감전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후 중단사업손익을 가감한 최종 이익이다. 중단사업손익의 경우 특별손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먼저 1단계(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과정에서 활용할 재무비율은 매출총이익률, 매출액증가율, 총매출원가율, 재고자산회전율, 상품매출원가율, 제품매출원가율, 매출채권회전율, 매입채무회전율이다.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증가율을 통해 산업의 단기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지 파악한다. 그리고 재고자산회전율을 통해 상품이나 제품이 판매되는 속도를 파악하여 향후 매출 증가의 확대와 둔화를 가늠해 본다. 또한 매출총이익률과 총매출원가율을 통해 원가 대비 수익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매출과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회전율을 파악하여 산업내 자금회전의 활동성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이익, 당기순이익 도출과정의 4단계 분석을 통해 각 단계별 수익·비용발생의 재무적 트렌드 파악** ”

2단계(매출총이익-판매비와 관리비=영업이익)과정에서 활용할 재무비율은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증가율, 매출액 대비 판매비, 연구개발비, 인건비, 일반관리비이다. 영업이익증가율을 통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을 파악하고, 영업이익률을 통해 본 단계의 수익성을 분석한다. 또한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하여 어떤 항목의 비용증감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 각 비용항목들의 매출 대비 효율성을 점검해 본다.

3단계(영업이익+영업외이익-영업외비용=법인세차감전이익)과정에서 활용할 재무비율은 법인세차감전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영업이익/이자비용 비율이다.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을 통해 본 단계의 수익성을 파악하며, 법인세차감전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의 변동성을 분석한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의 세부항목은 매우 다양하고, 기업마다 사용하는 계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영업외비용의 주요 항목인 이자비용의 경우 기업의 지속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영업이익/이자비용 비율을 통해 활용하도록 한다. 만약 영업이익/이자비용 비율이 1이하로 떨어지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4단계(법인세차감전이익-법인세비용=당기순이익)과정에서 활용할 재무비율은 매출액순이익률, 총자본순이익률(ROI),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유보액/납입자본 비율이다. 매출액순이익률 변동을 통해 산업 내 경영활동의 최종성과를 파악하고, 투자된 자본 대비 최종 수익성 변동을 함께 분석해 본다. 또한 유보액/납입자본 비율을 통해 산업 내 기업들의 신규투자여력의 변동을 살펴 보도록 한다.



회계적 수익·비용 흐름에 따라 20개의 재무비율을 도출함. 4개의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 비율을 포함하여 총 24개의 재무비율 분석을 수행



회계적 수익·비용 흐름에 따른 단계별 활용 재무비율

단계	활용 재무비율	산출식
[1단계]	매출총이익률	$(\text{매출총이익} / \text{매출액}) \times 100$
	매출액증가율	$\frac{(\text{당기총매출액} - \text{전기총매출액})}{\text{전기총매출액}} \times 100$
	총매출원가율	$(\text{총매출원가} / \text{총매출액}) \times 100$
	재고자산회전율	$(\text{매출원가} / \text{평균재고자산})$
	매출채권회전율	$(\text{매출액} / \text{매출채권})$
	매입채무회전율	$(\text{매출원가} / \text{매입채무})$
[2단계]	영업이익률	$(\text{영업이익} / \text{매출액}) \times 100$
	영업이익증가율	$\frac{(\text{당기영업이익} - \text{전기영업이익})}{\text{전기영업이익}} \times 100$
	매출액 대비 판매비	$(\text{판매비} / \text{매출액}) \times 10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text{연구개발비} / \text{매출액}) \times 100$
	매출액 대비 인건비	$(\text{인건비} / \text{매출액}) \times 100$
[3단계]	법인세차감전이익률	$(\text{법인세차감전이익} / \text{매출액}) \times 100$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	$(\text{영업외수익} / \text{매출액}) \times 100$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	$(\text{영업외비용} / \text{매출액}) \times 100$
	영업이익/이자비용 비율	$(\text{영업이익} / \text{이자비용})$
[4단계]	매출액순이익률	$(\text{당기순이익} / \text{매출액}) \times 100$
	총자본순이익률(ROI)	$(\text{당기순이익} / \text{총자산}) \times 100$
	자기자본순이익률(ROE)	$(\text{당기순이익} / \text{자기자본}) \times 100$
	유보액/납입자본 비율	$(\text{유보액} / \text{납입자본금})$

평균의 이상치(Outlier) 제거

“ 현실적인 의미
도출을 위해 표본의 상하위
10% 이상치 (outlier) 를
제거한 Trimmean 을 사용 ”

산업 재무비율의 평균값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유의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평균값을 왜곡시키는 이상치(outlier)를 제거해야 한다. 이상치란 관측된 데이터의 범위에서 상당히 벗어난 매우 큰 값이나 매우 작은 값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상치를 포함하여 평균을 도출하면, 현실적인 상황과 매우 동떨어진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Trimmean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Trimmean이란 주어진 자료에서 상위와 하위의 일정범위를 제거한 후 도출한 평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0% Trimmean은 이상치를 제거하지 않은 전체 자료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10%의 Trimmean은 상위와 하위 10% 값을 제거한 후 구한 평균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50%의 Trimmean은 자료의 중앙값(median)을 의미한다.

아래의 예시에서 보듯이 이상치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철강 산업에 속하는 전체 기업의 매출액증가율 평균은 3.18%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하위 10%를 제거한 평균인 -2.37%와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상하위 10%가 산업의 현실을 상당히 왜곡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평균은 기본적으로 표본이 많을 수록 보다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10%의 상하위 자료를 제거한 Trimmean 값을 사용하도록 한다.

2016년 철강 산업 전체의 평균 매출액증가율(Trimmean)		
범위(%)	관측치 수	Trimmean
0	537	3.18
10	430	-2.37
20	322	-2.59
30	215	-2.68
40	107	-2.63
50	1	-2.30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2~2016년

철강 산업 전체 재무분석

“ 2015년 큰 폭으로 둔화된 철강 산업의 성장성은 2016년 들어 회복되는 추세 ”

자산, 부채, 자본으로 본 철강 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

철강 기업들의 평균적인 총자산은 최근 5년 간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2015년 총자산증가율은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그러나 2016년 들어 다시 성장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산에서 자본의 영향을 보여주는 자기자본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자본 대비 부채의 비중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때, 전반적으로 철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장기적인 재무안정성도 개선되는 추세이다. 다만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분석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철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단기지급능력은 전반적으로 다소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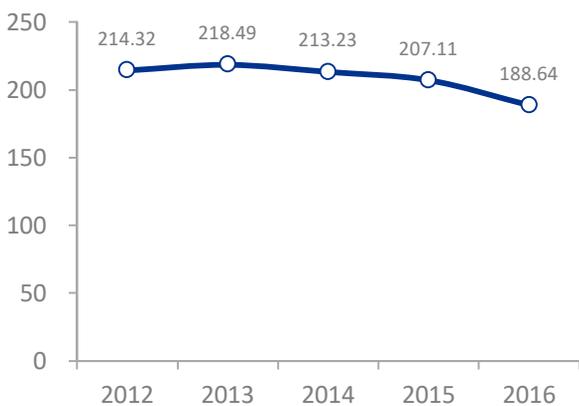
총자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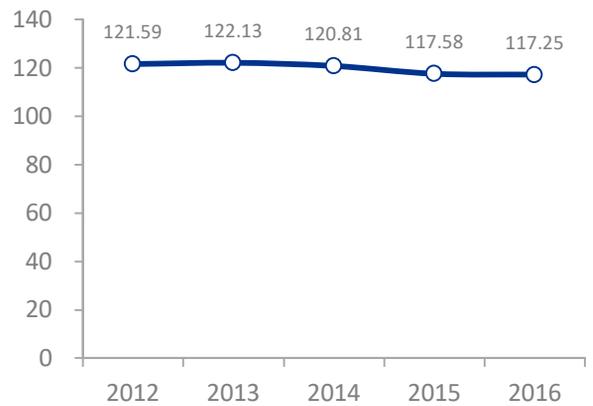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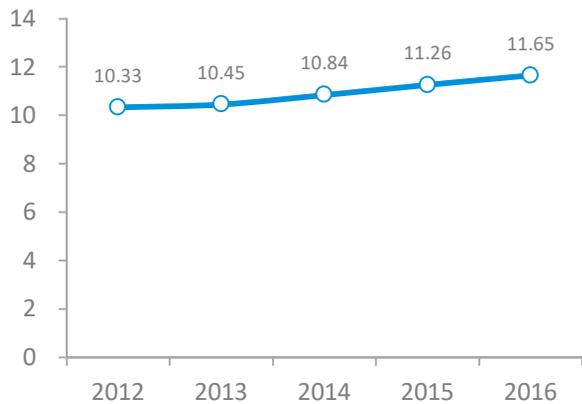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철강 산업의 매출과 원가관리

“ 2016년 철강 산업의 매출액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매출액 감소폭이 다소 축소된 상황 ”

2016년 철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매출액은 2015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다만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매출액 감소 폭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하반기 부터 주요 철강재의 가격이 회복되는 흐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매출총이익률은 분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출총이익에서 상품의 구입비용 또는 제품의 제조비용인 매출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재고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재고자산회전율은 2016년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상품이나 제품이 판매되는 속도가 구매 및 생산 대비 느려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향후 매출 등이 둔화되고 유동성이 악화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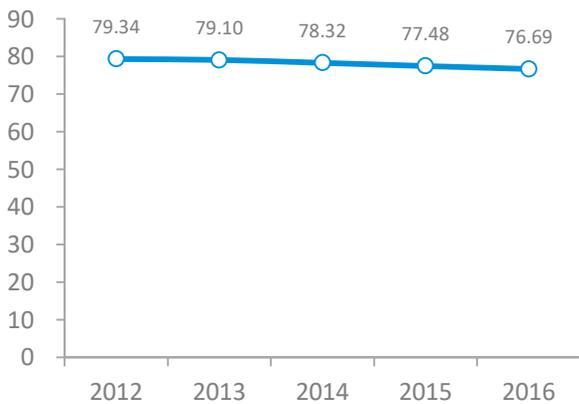
매출총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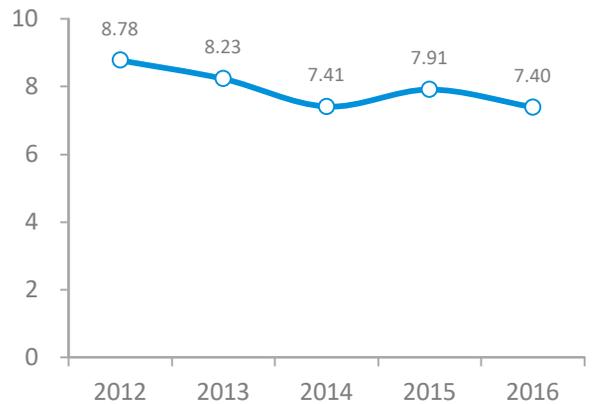
매출액증가율(%)



총매출원가율(%)



재고자산회전율(회)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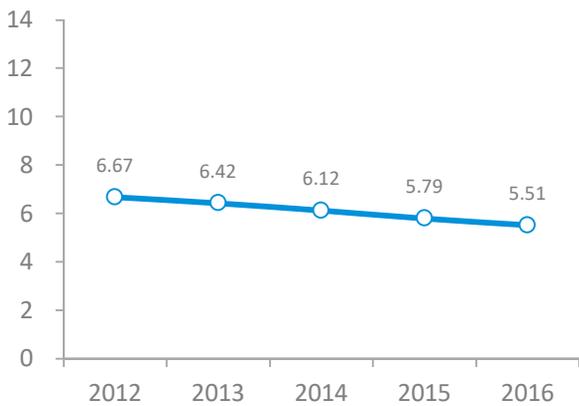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2~2016년

“ 철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자금회전 활동성이 다소 둔화되는 추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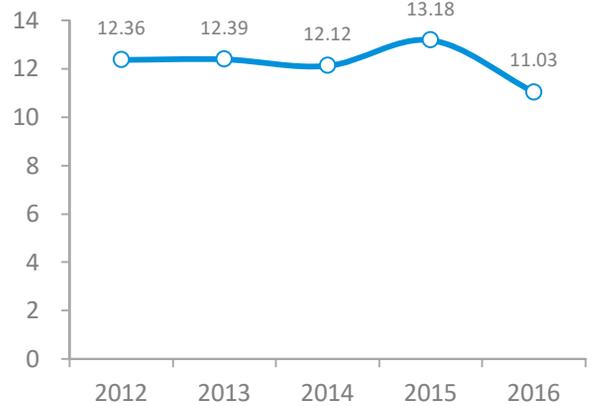
매출채권회전율이 상승하는 것은 현금유입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나타내나, 하락하면 대손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현금유입이 느려진다고 볼 수 있다. 매입채무회전율은 매입채무의 변제속도를 나타내며, 이 비율이 증가할 수록 기업의 지급능력이 개선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매입채무회전율과 매출채권회전율은 기준이 되는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동일 업종의 평균비율과 비교한다.

철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매출채권회전율과 매입채무회전율 모두 최근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의 회수기간과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변제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철강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자금회전의 활동성이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매출채권회전율(회)



매입채무회전율(회)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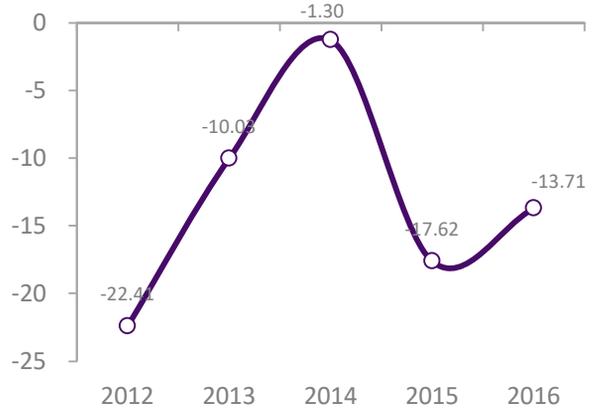
“ 지속적으로 하락
했던 영업이익률은 2016년
들어 회복 추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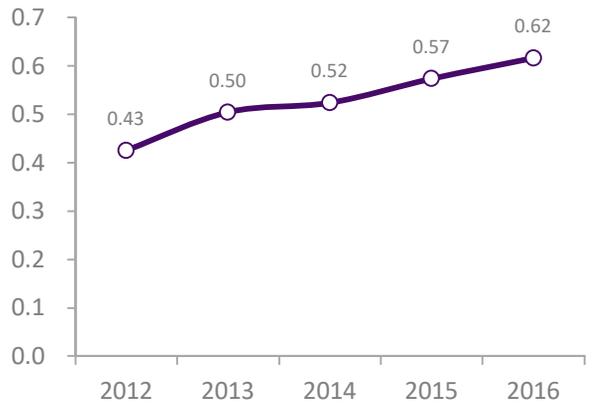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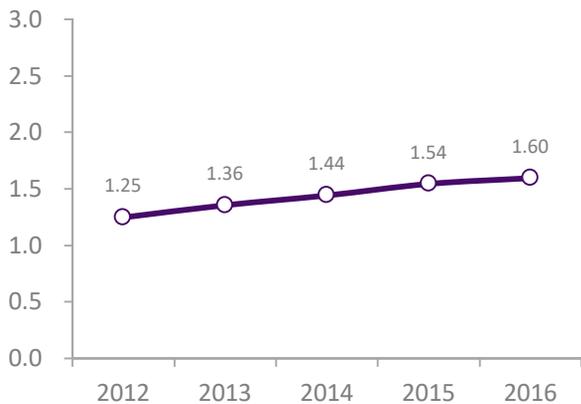
철강 산업의 영업이익 및 판매비와 관리비

철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영업이익은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영업이익률은 2016년 들어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출액 대비 주요 판매비가 최근 5년 간 대체적으로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이유는 매출총이익률의 개선에 기인한 측면에 크다고 보여진다. 매출액 대비 판매비의 경우 최근 5년간 소폭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도 미미하지만 분석기간 동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철강 산업에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방산업 수요변화로 인해 고강도 경량화 소재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바, 연구개발비를 단기 비용보다는 장기 투자로 인식하여 새로운 기술생태계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증가율(%)



매출액 대비 판매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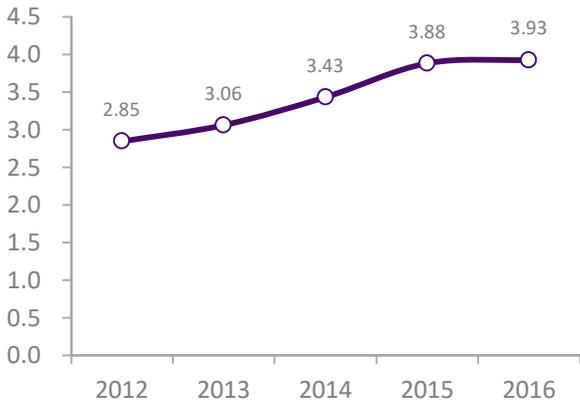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2~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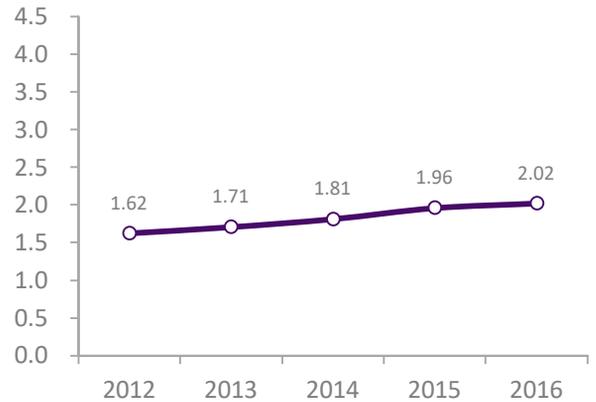
“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 경상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한편 2012년 이후 철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평균적으로 3.93%를 기록했다. 또한 임차료,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 각종 관리비용을 포함하는 일반관리비도 미미하지만 매출액 대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종합하면, 대부분의 매출액 대비 경상 비용이 상승하는 추세에서도 철강 기업들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은 회복되고 있는데, 이는 재무적으로 매출원가율의 하락이 경상비용의 증가보다 수익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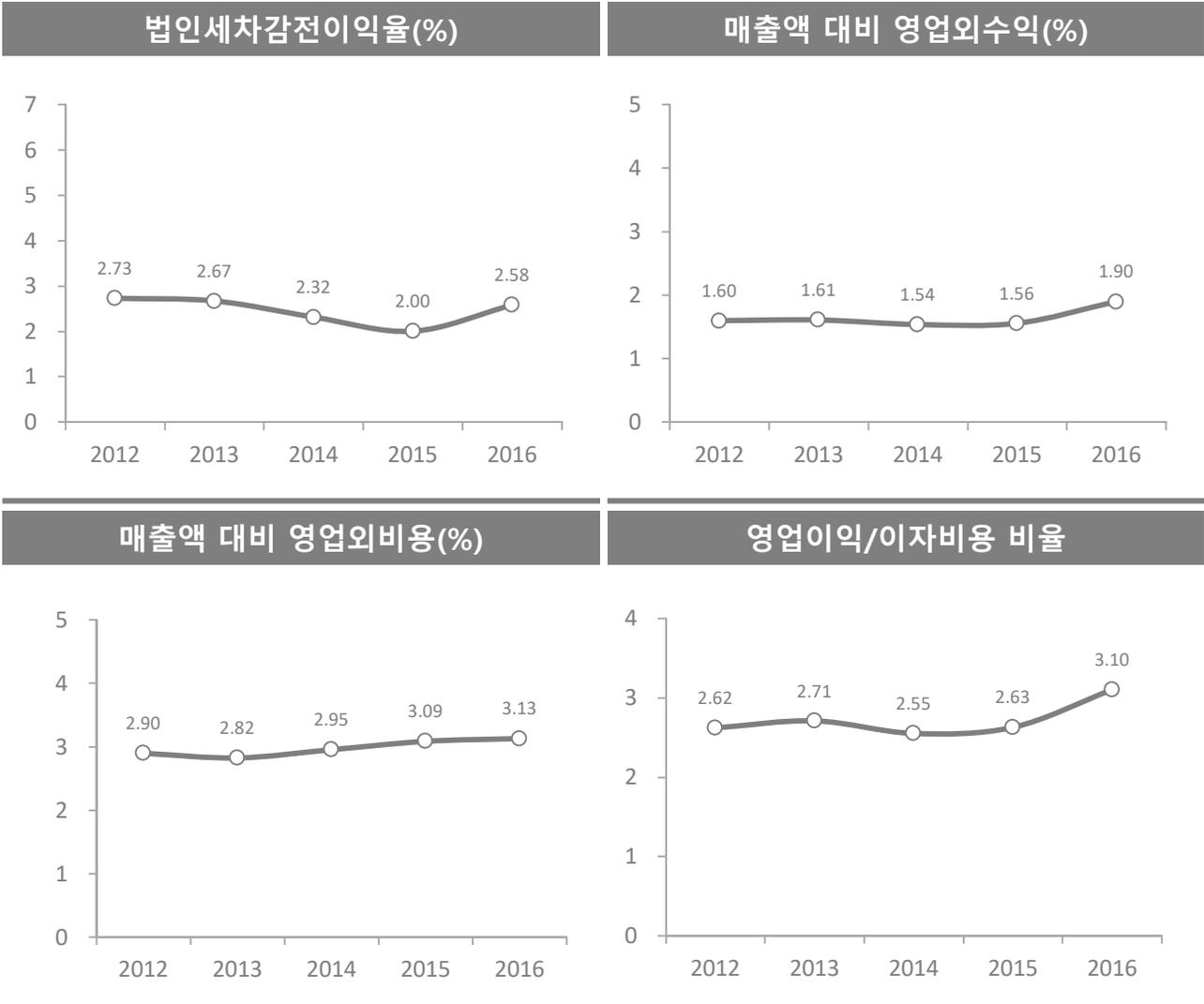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철강 산업의 법인세차감전이익과 영업외손익

“ **영업이익/이자비용 비율이 상승하여 영업활동의 지속성이 전반적으로 개선** ”

철강 산업에서 2016년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은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과 유사한 변동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영업이익률 보다 더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는 영업이익 도출 후 법인세차감전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외수익의 상승폭이 영업외비용의 상승폭 보다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여전히 매출 대비 영업외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영업외수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은 영업이익률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영업외비용의 중요 항목으로 이자비용이 있는데,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1이하로 떨어지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철강 산업의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2014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영업 활동의 지속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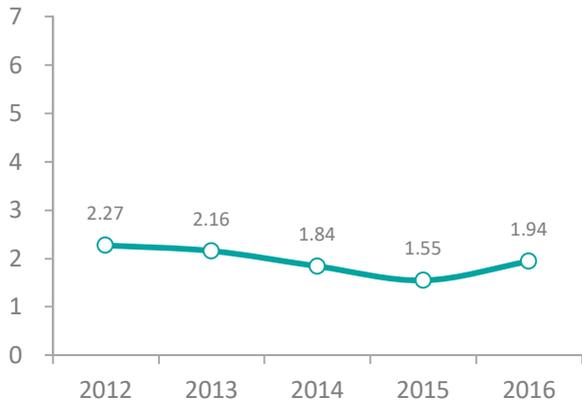
철강 산업의 최종성과와 미래 신규투자여력

“ 철강 산업의 회계적 순이익률 및 자본이익률 모두 2016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신규 투자여력도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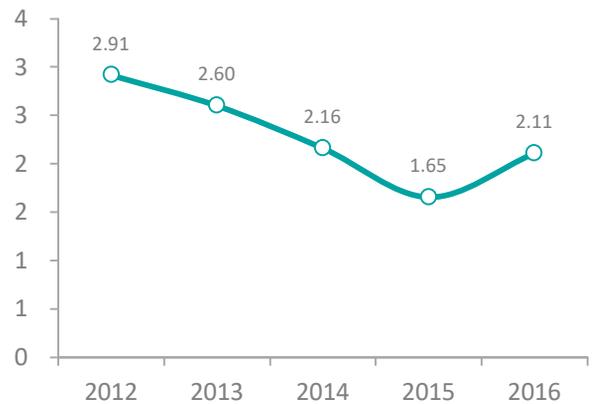
당해 년도 기업활동의 총체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매출액순이익률의 경우 분석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2016년 1.94%로 다소 회복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철강 산업에서 기업에 투자된 총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판단하는 지표인 총자본순이익률(ROI)과 주주의 투자자본 단위당의 이익을 측정하는 자기자본수익률(ROE)도 2016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분석기간 동안 지속된 순이익률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철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유보액/납입자본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이를 통해 볼 때 철강 산업 내 기업들의 신규 투자 여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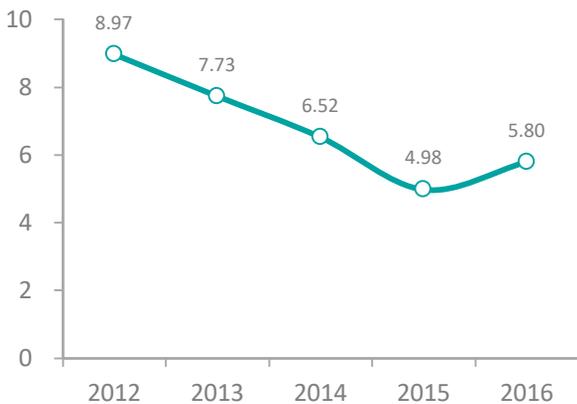
매출액순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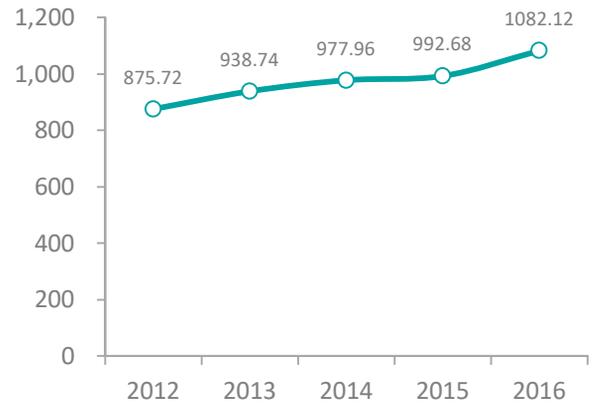
총자본순이익률(ROI,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유보액/납입자본 비율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2~2016년

철강 산업 세부 업종별 재무분석

“ 철강 산업 내 세부 업종의 총자산 증가에 자본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추세 ”

자산, 부채, 자본으로 본 철강 산업 세부 업종별 미래 성장잠재력

2016년 철강 산업의 모든 세부 업종에서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총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이 전년대비 5% 이상의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은 2015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 성장성이 다소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2014년 이후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철강 산업 세부 업종에서 자기자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철강 산업 세부 업종의 총자산 증가에 부채보다 자본의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장기적 재무 안정성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하며, 향후 건전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비율(%)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2~2016년

“ 철강관 제조업, 철강 주조업,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의 경우 유동비율이 하락하여 단기지급능력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임 ”

자본 대비 부채의 비중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의 경우도, 2016년 대부분의 세부 업종에서 전년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장기적인 재무안정성이 대체적으로 개선되는 신호를 보였다. 그러나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평균적인 부채비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특히 2016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동 업종의 장기적인 재무안정성이 산업 내 타 업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16년 유동비율의 경우 업종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는데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과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여 단기지급능력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의 유동비율은 2015년 급락한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철강관 제조업, 철강 주조업,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의 경우 전년 대비 유동비율이 하락해 현금유동성 및 단기지급능력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채비율(%)



유동비율(%)



Source: Kisvalu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2~2016년

철강 산업 세부 업종별 매출과 원가관리

“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의 매출 총이익률은 평균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 ”

2016년 철강 산업의 세부 업종별 평균적인 매출액을 보면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강 주조업의 경우 매출액 감소폭이 -6.51%로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을 제외한 세부 업종의 매출액 감소폭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6년 매출액총이익률의 경우, 철강 주조업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미미하지만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대부분의 업종에서 원가 대비 수익성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제강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의 경우 분석 기간 동안 매출액총이익률이 꾸준히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총이익률(%)



매출액증가율(%)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2~2016년

“세부 업종별 재고자산회전율은 전반적으로 하락”

매출총이익률과 반대의 개념이며, 총매출액 중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영업활동의 능률성을 파악하는 지표인 매출원가율을 보면,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를 제외하고 분석기간 동안 대부분의 세부 업종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의 매출원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 원가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고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재고자산회전율의 경우 2016년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이 산업 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3년 이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업종의 재고자산회전율도 대체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철강 산업에서의 생산 대비 판매 속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매출원가율(%)



재고자산회전율(회)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2~2016년

“ 매출채권회전율과
매입채무회전율은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이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2016년 매출채권회전율은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즉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금유입의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며, 대손발생 위험이 미미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업종별로 매출채권회전율의 수치 값을 비교해 보면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이 12.61회로 가장 높으며, 그 외 업종은 5%대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매입채무회전율의 경우도 분석 기간 동안 대부분의 업종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채무회전율이 하락하면 현금 유출을 지연시켜 단기 유동성 악화를 일정부분 방어하는 측면이 있지만, 유동부채가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는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다소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매출채권회전율(회)



매입채무회전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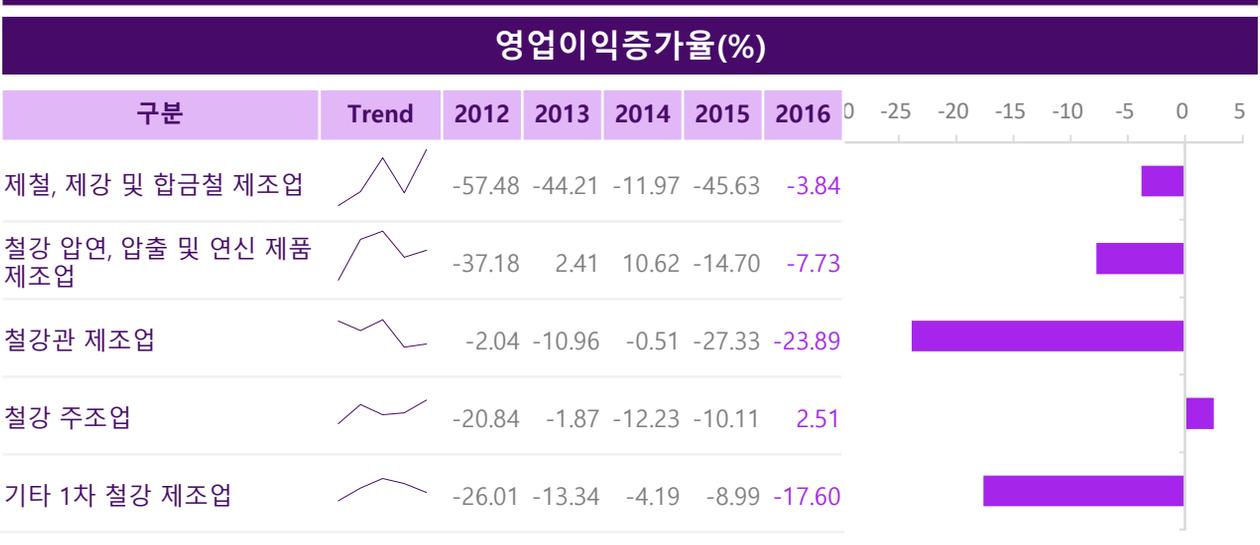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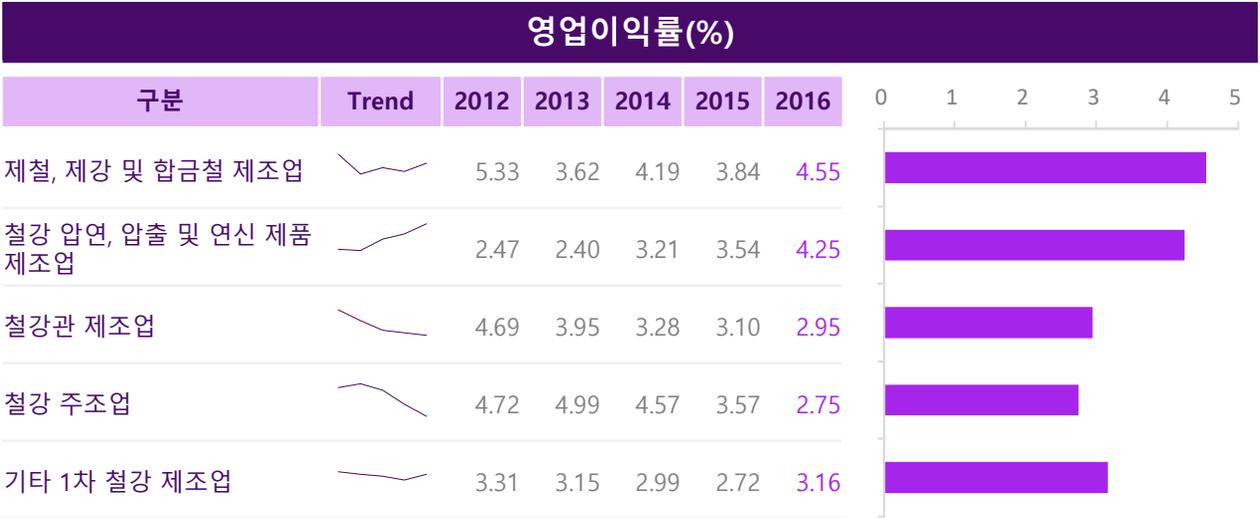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2~2016년

철강 산업 세부 업종별 영업이익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

2016년 철강 산업 세부 업종 중 철강 주조업을 제외하고 평균적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철강관 제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3.89% 하락하여 타 업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6년 영업이익률의 경우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이 철강 산업의 세부 업종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특히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2년 세부 업종 중 가장 낮았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2016년을 기준으로 철강 주조업의 영업이익률이 2.75%로 산업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철강관 제조업과 철강 주조업의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2~2016년

“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과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 ”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중 매출액 대비 판매비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이 2.12%로 산업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이 1.06%로 산업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출액 대비 판매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경우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이 산업 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철강관 제조업도 상대적으로 타 업종 대비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연구개발비는 모든 세부 업종에서 매출액 대비 1% 미만의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과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0.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매출액 대비 판매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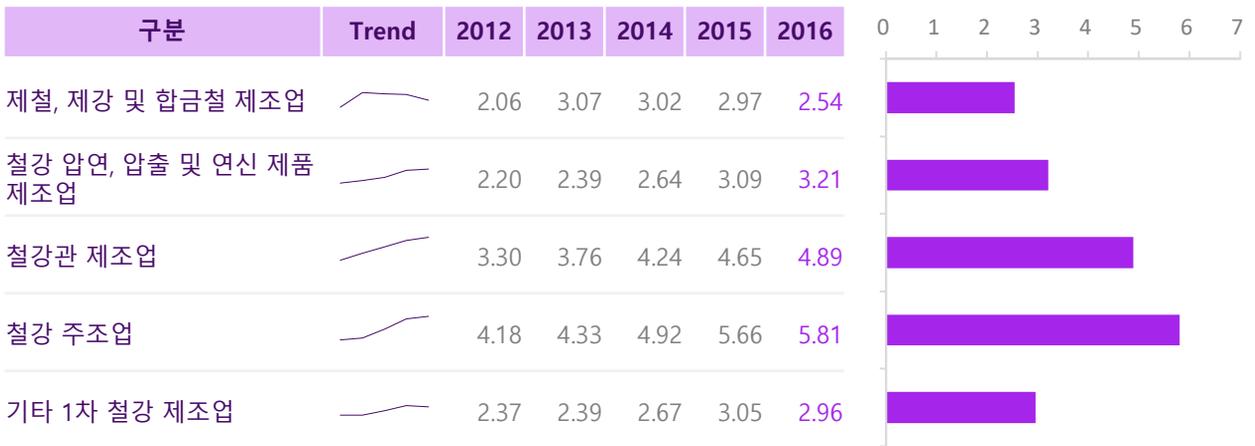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2~2016년

“ 철강 주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일반관리비가 산업 내 가장 높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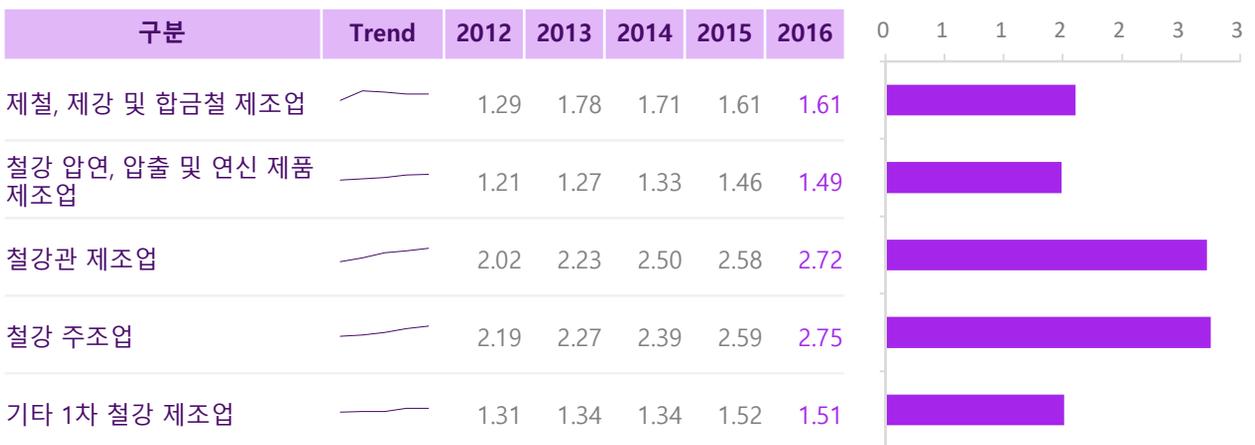
2016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경우 철강 주조업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이 5.81%로 산업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이 2.54%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업종별 추세를 비교해보면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철강관 제조업과 철강 주조업이 분석기간 동안 타 업종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2016년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의 경우도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철강 주조업이 산업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철강관 제조업이 그 뒤를 따랐다. 반면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의 경우 2013년 이후 미미하지만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 상승 ”

철강 산업 세부 업종별 법인세차감전이익과 영업외손익

2016년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의 경우 모든 세부 업종에서 영업이익률을 하회했는데, 이는 법인세차감전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외비용이 영업외수익보다 높은 것에 기인한다. 다만 세부 업종별 법인세차감전이익률은 영업이익률과 추세적으로는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분석 기간 동안 철강 산업 내에서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이 가장 큰 업종은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이지만, 동 업종의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은 2016년 들어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2012~2015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은 2016년 들어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되었고, 철강관 제조업, 철강 주조업,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의 2016년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도 전년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인세차감전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외수익(%)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2~2016년

“ 철강관 제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영업활동의
지속성이 악화되는 추세 ”

2016년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의 경우 철강관 제조업이 산업 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분석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도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과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의 2016년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자보상배율의 경우 증가할 수록 영업활동의 지속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분석 기간 동안 이자보상배율은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이 산업 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16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과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의 이자보상배율도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철강관 제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영업활동의 지속성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



영업이익/이자비용 비율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2~2016년

철강 산업 세부 업종별 최종성과와 미래 신규투자여력

“ 상대적으로 매출액 대비 낮은 인건비와 일반 관리비, 높은 영업외 수익으로 인해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의 회계적 수익률이 가장 높아 ”

기업활동의 최종적인 회계적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매출액순이익률을 살펴보면, 2016년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이 산업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철강 주조업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철강 주조업은 매출총이익률이 산업 내 가장 높았지만,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매출액 대비 영업외비용 또한 산업 내 가장 높아 최종적인 수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의 경우 매출총이익률은 산업 내 낮은 수준이었으나 타 산업과 비교할 때 매출액 대비 낮은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비중, 높은 영업외수익으로 인해 최종적인 매출액순이익률이 산업 내 가장 높았다. 한편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철강관 제조업의 매출액순이익률도 2016년 들어 다소 회복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매출액순이익률(%)



총자본순이익률(ROI, %)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무비율로 본 철강 산업 2012~2016년

“ 철강 산업 내 모든 세부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유보액 비중 상승. 신규 투자여력이 증대되는 상황 ”

2016년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을 합한 총자본 대비 순이익률인 ROI도 철강 산업 내 타 업종과 비교할 때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이 2.95%로 가장 높았으나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률인 ROE의 경우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이 6.91%로 산업 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외에도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산업 내 가장 낮은 것에서 일정부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납입자본 대비 유보액 비율을 보면 모든 세부 업종에서 상승한 모습을 보였으며, 분석기간 동안 납입자본 대비 유보액 비율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철강 산업 세부 업종들의 전반적인 미래 투자여력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의 납입자본 대비 유보액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타 업종과 비교할 때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유보액/납입자본 비율



Source: Kisvalue, 삼성KPMG 경제연구원

결론 및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철강 산업의 경영 환경 변화를 회계적·재무적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물론 재무비율을 통해 산업과 기업의 모든 주요 이슈들과 숨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각 사에서 공개하는 재무제표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가능한 한 철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영성과와 수익·비용의 재무적 트렌드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경기 불황 속에서 서서히 회복의 모습을 보이는 철강 업계

지난 몇 년간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철강 산업은 최근 급격히 위축되었던 성장잠재력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년 1.14%를 기록 했던 총자산증가율은 2016년 들어 3.63%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016년 매출액은 -2.37%로 여전히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5년 -5.59%까지 하락했던 점을 미뤄보면 매출액 감소폭이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채비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자기자본의 꾸준한 증가도 철강 업계의 장기적인 재무안정성을 개선시켜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철강 업계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2016년 들어 회복되는 조짐 ”

2016년 성장성 지표들의 회복과 더불어 수익성 지표들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원가 대비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매출총이익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2012~2015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영업이익률도 2016년 들어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또한 기업에 투자된 자본 수익률인 ROI와 ROA도 2015년 분석 기간 내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6년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의 지속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도 2012~2015년 기간 동안 2배에 머물렀으나, 2016년 3배로 개선되었으며, 납입자본 대비 유보액도 꾸준히 축적되어가고 있다. 종합해 보면, 철강 경기가 점차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동비율,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은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단기적인 유동성은 약화된 상태이며, 이를 미뤄볼 때, 철강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 연구개발과 투자확대로 환경변화에 대응할 필요

2016년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전방산업의 수요가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 경기가 다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건설경기 호조와, 국내외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급과잉 조절이 일정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강 업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 혁명을 필두로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 보호무역주의 확산, 전방산업 수요 변화, 환경규제 강화, 건설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철강 산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 ”

전방 산업의 수요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도 점차 가중되고 있으며, 여전히 범용 철강 제품의 생산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철강 업계의 회복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 보는 주요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철강 업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가늠할 수 있다.

“ 전방산업의 수요 변화로 인해 철강 업계에 연구개발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먼저 전방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차체경량화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 측면에서 친환경차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체경량화는 미래 자동차의 연비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주행거리가 비교열위로 지목되는데, 차체경량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경량화 측면 외에 새로운 에너지원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첨단 소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철강 업계는 초고장력 강판, 다중소재 접합기술, 초내열합금강 등에 대해 기술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소재에 대한 개발도 지속해야 한다. 또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설비와 새로운 공법에 대한 기술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나 2016년 0.62%로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회계적으로 연구개발비는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고 경영성과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전방산업의 수요 전환기에 철강 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를 단기 비용보다는 장기 투자로 인식하여 새로운 시장 생태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철강 업계의 유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위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 ”

한편 기술 우위에 있는 기존 범용 제품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팩토리 등 지능형 조업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M&A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범용 제품에서 높아져가는 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JV(Joint Venture)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철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납입자본 대비 유보액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신규 투자여력을 확보해 왔다.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강 업계는 축적해온 자본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다.

Business Contacts

철강 산업 전문팀

조자영
부대표
02-2112-0640
jjo@kr.kpmg.com

최세홍
전무이사
02-2112-7628
sehongchoi@kr.kpmg.com

변재준
전무이사
02-2112-0828
jbyun@kr.kpmg.com

이주한
전무이사
02-2112-0517
juhanlee@kr.kpmg.com

노상호
상무이사
02-2112-7626
sanghoroh@kr.kpmg.com

강성채
상무이사
02-2112-0635
sungchaekang@kr.kpmg.com

배정규
상무이사
02-2112-0615
jbae@kr.kpmg.com

이상근
상무이사
02-2112-0863
sangkeunlee@kr.kpmg.com

kr.kpmg.com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